

평화시장, 그 오랜 기억의 망루에서 돌아보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발화점 청계피복노조

글 · 김기선 ningirsu@naver.com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민주노조운동의 발화점, 청피노조

청계천 6가에 자리한 평화시장 옥상.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발화점이자 197, 80년대 노동운동을 기개 있게 이끌어 간 청계피복노동조합(이하 청계피복노조)이 처음 등지를 튼 곳이다. 한때 조합원 수 6천을 헤아리던 쩡쨍한 시절도 있었지만, 바닥 전체가 녹색으로 페인팅 된 옥상 어디를 둘러봐도 옛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옥상 한 구석에 조성된 자그마한 휴게실과 새마을금고가 눈에 띄는, 점심시간에 삼립빵을 먹으며 누렇게 웃던 처녀들도 관짝처럼 길쭉한 일곱 평짜리 노조 사무실도 간데없다.

일곱 평이라면 책상 몇 개 놓으면 딱 찰 비좁은 공간이었을 텐데도 민종덕(55세, 전 청계피복노조 위원장)은 이곳을 ‘작지만 널찍한 공간’으로 회고한다.

“옥상이니까 밖은 널찍하잖아요. 이 옥상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공장 다락방, 그 어두운 데서 쪼그려 앉아 일하다가 잠깐씩 올라와 허리도 펴고 햇볕도 쬐고 하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공간인 거죠. 점심시간에 노조 사무실도 왔다갔다하고, 무슨 일 있으면 옥상에 천막 쳐놓고 농성도 하고……. 70년대 초는 민주노조운동이 성숙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조합원 수준도 초보적이고 노조 활동도 경제투쟁적인 성격이 많았던 거고, 재네들도 노조는 신경이 쓰이지만 그 자체가 큰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니까 탄압을 하면서도 일정하게 합법적인 공간이 유지될 수 있었죠. 바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성장해 왔던 거예요.”

소설가 안재성의 말처럼 ‘모든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청계, 내 청춘』의 서두) 전태일. 그의 죽음은 근대화의 광기에 휩싸인 한국 사회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며, 그의 유지를 헌신적으로 받들었던 청계피복노조의 등장으로 한국 노동운동은 전후의 폐허를 딛고 재점화되었다.

노조 결성을 주도한 전태일의 친구들은 당국의 탄압과 감시, 업주들의 노골적인 방해, 어용으로 비판받던 한국노총 출신자들이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이 믿을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과 ‘죽은 전태일’ 밖에 없었다.

그들은 정부와 업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노조운영’ 원칙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리해서 해결하는 그들의 활동방식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각종 소모임 활동과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음으로써 향후 노동자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었다.

평화시장의 어린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 속에서 처음으로 존중받는 인간이 된 기분을 느꼈다. 13~14시간의 고된 노동이 끝나면 그들은 노조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꼬박꼬박 참여했다. 조합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은 점점 더 절실했다.

1972년 가을, 청계피복노조 부녀부장 정인숙이 모범근로여성으로 뽑혀 청와대 모임에 초청됐을 때였다. 대통령 부인 육영수가 물었다.

“지금 청계노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가요?”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가 2만 명인데 그중 상당수가 15세 미만의 어린 소녀들입니다. 배움에 목마른 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어린 근로자들이 마음껏 공부할 교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숙의 답변은 물론 사전에 집행부와 논의한 내용이였다. 육영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은 생각이군요. 그렇지 않나요?”

육영수는 부드러우나 위엄 있는 눈길로 노동청장을 바라보았다.

배움의 장, 투쟁의 장, 연대의 장

70년대 청계피복노조의 핵이라 할 노동교실 설립은 영부인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교실을 지키고 그곳에 전태일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고난에 찬 투쟁은 온전히 청계피복노조와 노동자 자신의 것이었다.

업주들과 노총, 노조 3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1973년 동화시장 옥상 50평 건물에 새마을노동교실을 설립했다. 갈등은 첫날부터 터져나왔다. 노동교실 개관식



“이 옥상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공장 다락방, 그 어두운 데서 뜨고려 앉아 일하다가 잠깐씩 올라와 허리도 펴고 햇볕도 쬐고 하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공간인 거죠. 점심시간에 노조 사무실도 왔다갔다하고, 무슨 일 있으면 옥상에 천막 쳐놓고 농성도 하고…….” 민종덕 씨가 그때 기억들을 되살려 말했다.

에 재야인사 함석헌과 장준하가 나타나자 정보기관과 노동청은 발각 뒤집어졌다. 함석헌 초청을 둘러싸고 중앙정보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노조가 궁지에 몰리자, 업주들은 돈 몇 푼 낸 걸 내세워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다. 업주들은 중앙벽에 육영수의 사진이 걸린 이 노동교실의 주도권을 빼앗아 ‘공장새마을운동’의 중심공간으로 삼으려 하였으며, 노조는 이곳을 민주노조운동의 산 교육장이자 전태일 정신을 설파할 핵심 공간으로 이용하려 했다.

“표면적으로는 업주들하고 노조가 노동교실 운영 주체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한 과정이지만, 크게 보면 이 노동교실이란 공간을 둘러싸고 박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노동자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 정권은 계속해서 그걸 침해하려고 탄압하는 그런 싸움의 끊임없는 연속이었어요. 어용이나, 아니냐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주성을 지키려는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싸우다 싸우다 업주들도 포기하고, 노조도 ‘니네가 하는 동화시장 옥상 안 쓴다.’ 해가지고 그 임대 보증금에다 아프리(아시아아프리카자유노동기구)에서 기자재 지원을 받아서 유림빌딩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어요.”

청계피복노조가 유림빌딩 3, 4층에 노동교실을 마련한 것은 1975년 3월이었다. 기나긴 싸움 끝에 유신정권과 자본으로부터 기어이 노동교실을 쟁취한 것이다. 이 새로운 노동교실은 청계피복노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었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민주노조 조합원들이나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곳에 출입하고 교류함으로써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끈끈하게 연대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옛날에 내가 노동교실을 ‘배움의 장, 투쟁의 장, 연대의 장’이라 정의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노조사무실보다 이 노동교실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노조사무실은 점심때 말고는 크게 갈 일이 없는데, 노동교실은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리지 않으면 하루를 제대로 마감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친근감이 있었던 공간이었죠. 저녁이면 소모임 하러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방마다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모임하고, 뭔가 권수가 터지면 모여가지고 농성하고, 낮에는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이 와서 모임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살아 있는 공간이었어요.”



청계천 평화시장 뒷골목에는 2009년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소모임과 교육을 통해 모아진 조합원의 힘을 바탕으로 1975년 12월 청계피복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다락방 철거 등의 값진 승리를 얻어냈다. 이는 전태일의 친구들로 구성된 노조 1세대의 꾸준한 조직 활동과 교육을 바탕으로 한 2세대의 출현, 즉 전투적인 새 집행부가 등장한 결과였다. 이들의 등장은 청계피복노조의 숨가쁜 투쟁을 강력히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독재정권이 이들의 도전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다. 1977년 7월 저들은 장기포의 재판정에서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을 연행했으며, 동시에 그녀가 실장으로 있는 '노동교실'을 봉쇄했다. 이소선 석방과 노동교실 반환을 요구하는 9월 9일의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민중덕이 3층에서 투신하고, 신승철이 할복을 기도하는 등 9·9투쟁은 이 날 뿌려진 선언문 제목대로 '결사' 투쟁이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원천

1980년대에도 청계피복노조는 실로 모든 것을 내던져 싸웠다. 전두환 신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그 살벌한 시기에도 청계피복노조는 숨죽이지 않았다. 80년 봄 임금투쟁에서 임금인상 29%, 10인 이상 15인 미만 업체에 퇴직금 실시 등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룬 그들은 이미 민주노조운동의 선봉이요 나침반이었다.

청계피복노조에 해산명령서가 날아든 것은 이듬해 1월이었다. 이소선이 구속되고, 간부들이 끌려가 치도곤을 당한 뒤였다. 간부들은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끝까지 버텼다. 1월 21일 저들은 마침내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간부들을 몰아내고 출입문에 못질을 해버렸다. 분노한 노조원들은 아프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장렬히 저항했다. 그러나 소방 사다리를 동원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많은 구속자와 수배자를 남기고 농성은 끝이 났다.

전두환 정권의 칼바람 앞에 쓰러진 청계피복노조는 영원히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만일 청계피복노조가 여타의 70년대 민주노조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노조였다면, 복구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태일이 있었고, '굴러야 할 덩이'가 있었다. 뽀뽀이 흩어졌던 조합원들은 그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비밀리에 청계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구속자가 석방되고 수배자가 돌아오면서 용기백배한 그들은 '전태일열사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1984년 4월 8일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청계피복노조의 복구를 대내외에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위원장이 된 이가 바로 민중덕이다.

전태일 열사가 온 몸에 불을 지피고 쓰러져 간 장소다. 청계천, 한 인간의 죽음이 가져온 '노동운동사'의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단조롭기만 하다.



197, 80년대 노동자들에게 있어 평화시장은 그저 '평화'롭기만한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



“신당동에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노조를 복구했다지만 합법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법외노조라 정부에서 자꾸 건물주한테 쫓아내라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경찰은 또 그걸 핑계로 해서 사무실 집기를 길바닥에 끌어내는 거지. 하도 그렇게 당하니까 그때 우리 소원이 우리 자신의 건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사무실이 우리 명의로 돼 있으면 그런 식으로 탄압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미국 연합장로회 지원을 받아서 이 동대문상가아파트 사무실을 구입하게 됐어요. 이 공간에서 많은 집회를 했어요, 서노련도 여기서 결성식을 했구요.”

청계피복노조는 1984년 가을부터 1985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대회'를 가졌다. 이 세 번의 투쟁을 통해 노화연대는 더욱 강화되었고, 노동자들은 민주화투쟁의 중심에 당당히 서게 되었다. 청계피복노조 투쟁은 1988년 5월 2일 합법성을 획득할 때까지 줄기차게 계속되었으며, 87년 노동자대투쟁에 작은 불씨를 제공하였다. 1997년에 발간된 『전노협 백서』는 파란만장한 그들의 투쟁에 다음과 같은 헌사를 바쳤다.

그들의 장렬한 투쟁은 늘 한 시기의 시작이거나 마지막에 우뚝 서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들보다 먼저 희생당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이 있었다. 그들의 기지개는 1천만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시작종이었고, 그들의 침묵은 모든 노동자들의 저항이 분쇄되었음을 알리는 노동운동의 나침반이었던 것이다. (『전노협 백서』, 1997)



다시 평화시장에서

민중당은 평화시장 옥상 아래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았다. 청계고가도 복개천도 사라진 곳에 신기루 같은 패션타운이 눈을 어지럽혔다. 빛바랜 기억의 망루 아래 이명박의 청계천이 흐르고, 버들잎 같은 다리 위에 전태일 흉상이 서 있다.

전태일이 불타는 몸으로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가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다 쓰러진 지 40년. 우리의 노동운동은 과연 국민은행 앞길에서 몇 걸음이 나 더 나아간 것일까.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가로막고,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가 간단히 용인되는 이곳은 과연 그가 죽음으로써 나아가고자 했던 그곳인가.

전태일은 자신보다 약한 시대의 편에 서기 위해 임금이 높은 재단사직도 버리고 미싱사보조로 들어가지 않았던가. 노동운동진영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시 초심으로,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청계피복노조의 빛나는 투쟁사가 말해 주듯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김기선*

글 김기선 | 1965년 서울 출생. 평전 작가. 저서로는 「저는 열네 살 선영이에요」, 「전태일」, 「김진수」, 「최종길」,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이 있다.